

환경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건축계의 선언

<https://au.architectsdeclare.com/>

<https://www.architectureeducationdeclares.com/>

건축가들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비상사태 선언 (Architects Declare Climate & Biodiversity Emergency)

건축 분야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훼손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지구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건축계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건축가들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영국 왕립건축가협회(RIBA)의 참여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이러한 움직임이 노르웨이와 호주 건축계로 확산되었다. 미국건축가협회(AIA)는 긴급하고 지속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결의안(resolution for urgent and sustained climate action)을 회원 투표를 통해 채택하기도 하였다.

선언문은 “전 세계 CO₂ 배출량 가운데 40%가 건축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요구를 충족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건축주와 공급망 관계자들의 관련 인식을 제고할 것 ▲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한 디자인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공공의 우선적인 지원에 찬성할 것 ▲철거와 신축보다 기존 건물의 기능 향상을 시도할 것 ▲주명주기비용 산정, 전 생애 탄소 모델링, 거주 후 평가를 기본적인 작업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할 것 ▲건축 및 도시계획에서 낭비되는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엔지니어, 건설업자, 건축주와 협력하여 건설 폐기물 감소를 추진할 것 ▲내재탄소(embodied carbon)를 줄이기 위한 재료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관련된 지식과 연구를 공유할 것 등이다.

영국의 건축교육선언(Architecture Education Declare)

영국에서는 건축교육에서 생태학과 환경적 관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교육과정 전체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선언과 함께 공개서한이 발표되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약 1,670명의 교육계 종사자가 이 공개서한에 서명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선언문과 공개서한에서는 건축교육에서 생태학적 관점의 중요성, 환경 파괴와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 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학습 방식과 기관 간 협력, 학제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이끌 조직 내 워킹그룹을 만들고 ▲책임과 의무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연간 실행 계획을 개발하며 ▲연간 환경정책 검토를 실시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충족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산업을 배척하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선택지를 탐색함으로써 본보기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국 교육건축선언

출처: 영국 교육건축선언 홈페이지, <https://www.architectureeducationdeclares.com/> (검색일: 2019. 8. 16.)